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원각사에서 금남로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촛불정신으로 적폐청산하자"

광주서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된 1987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광주행사가 열렸다.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불교위원회는 6월 10일 광주 원각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6월 항쟁의 의미과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법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광주 원각사에서 금남로에 이르는 평화행진도 실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무애암), 토진 스님(백양사 주지),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을 비롯해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6.10항쟁에 참여한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던 원각사에서 주석한 현지 스님과 금강 스님 증언을 경청했다.

6.10항쟁 당시 원각사는 5월 18일 5.18민중항쟁 7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법당에 최루탄을 투척하고 난입해 13명을 연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불교계는 5월 19일 송광사 방장스님의 항의와 20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탄압 대책위를 구성, 원각사 청년회 · 대학생불교연합회 및 불교단체의 규탄성명과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26일 지선 스님(문빈정사)을 비롯한 스님 523인, 재가 280인이 당시 도경국장 등 경찰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27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비롯한 1만여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규탄 대법회가 원각사에서 열리고 1천여 명이 도심 시위에 참여해 6.10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많은 불교계 인사가 시민항쟁에 참여하게 됐고, 6월 14일에는 문빈정사 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이 '민주쟁취 및 구속인사 석방 불교계 대책위'를 구성했다. 19일 '호헌철폐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회' 등 항쟁을 이어나가 6월 26일 광주에서 30만 명이 참여한 평화대행진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공동체와 즐기는 문화공연"

고창군노인복지관,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잔치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위한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잔치를 진행했다.

6월 9일 성송면 남창경로당 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 어르신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외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식전행사로 이 · 미용, 네일아트 등이 진행됐으며, 이후 기념식과 고창군노인복지관 난타공연이 이어졌다. 문화공연에서는 조숙자 외 20명의 동백꽃 생활체조와 최성례 외 9명의 한국무용, 창부타령, 새타령공연이 진행됐고, 초대가수 이은희, 선민하 씨의 공연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유쾌한 하루를 선사했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네일아트를 제공하는 모습.

대원 스님은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관으로서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성송면사무소의 주민홍보,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의 이 · 미용, 네일아트 봉사 등 지역협력을 통해 이뤄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재로 소통하는 대가람 발원

구례 화엄사, 문화재 활용방안 모색 세미나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13일 경내에서 '문화재, 국민 속으로 가다'라는 주제로 화엄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물 위주의 불사를 지양하고, 화엄사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엄사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방향(김동현 前국립문화재연구소장) △화엄사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화엄사 불교미술(임영애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화엄사 사찰조경의 보존과 활용(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화엄사 석조 문화재 현황 및 보존방안(오세덕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화엄사 석경의 복원 및 활용(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명승 내 사찰 보존관리 대책(김종승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재 관람료 대체 방안(박한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사찰 문화재 활용방안(박동석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장) 등이 발표돼 화엄사 문화재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화엄사 교구 본말사 스님 150여명을 비롯해 신도 등 500명이 참여한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덕문 스님), 축사(박영근 문화재청 차장), 화엄사 소개 영상물 시청, 1부 화엄사 소개, 2부 토론(주제 '화엄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화엄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아이디어')이 진행됐다.

국보 · 천연기념물 자원 많아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국민에 다가가기 좋은 조건
"건축불사 대신 가치 발굴을"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화엄사 석경은 통일신라시대의 원융무애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동서갈등, 남북갈등, 계층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재"라고 강조했다.

황권순 유형문화재과장은 "불교문화재는 종례 관행을 개선하면 불교문화 중흥을 이룰 수 있다"며 "현재 사찰 공간 정비는 일정부분 완료됐다.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함께 국민 눈높이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사찰과 지역사회, 국민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문화재 내적 가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례 화엄사가 주최한 문화재 활용방안 모색 세미나는 사전 자료집 없이 구술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화엄사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엮어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사찰 조경과 관련해 홍광표 교수는 "사찰은 이미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다. 화엄사는 자연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잔디정원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는 조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응천 교수는 화엄사에 대해 "화엄사는 산지가람을 극대화한 사찰이다. 당당하고 웅장한 스케일과 섬세함, 화려함, 파격과 다양성을 보유한 사찰로 불교문화의 종합박물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박한규 정책총괄과장은 "관람료에 대한 매년 민원은 연간 20~30건 정도다. 주 내용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 목적에 대한 관람료 징수부분이다. 이미 조계종, 환경부, 문화관광부 협의는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며 "궁극적으로는 관람료 폐지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사는 문화재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성보 문화재의 활용과 보전 방식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한다"며 "건축불사를 지양하고 화엄사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지역과 상생하는 가람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사전 자료집 없이 각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표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자료집을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화엄사는 각황전 앞 석등(국보 12호)을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점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계가 달랜 국방의무 노고

순창사암연합회 · 신도회 제1회 군경 어울림마당

전북 순창지역 불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 젊은이들을 초청,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순창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와 순창신도연합회(회장 이동희)는 6월 14일 순창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순창 군 · 경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순창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순창 적성부대, 순창경찰서 의경, 순창 상비역중대, 순창군청 사회복부요원, 군청 공무원과 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한 어울림 한마당은 배구, 족구 등의 운동경기와 공연,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운동경기를 마친 후 진행된 기념식에는 청암 스님, 대모암 주지 동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영천사 주지 종혜 스님,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적성부대 이창환 대령, 황숙주 군수, 신일섭 순창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처음 열린 군경 어울림 한마당을 축하했다.


순창에서 처음으로 열린 군경 어울림 한마당서 장병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청암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경,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자리인 만큼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환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바비큐 등 푸짐한 점심식사와 음료, 간식이 제공됐으며 장기자랑에서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2박3일간의 특별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빛고을나눔나무 동구청에 쌀 1000kg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6월 14일 광주 동구청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보응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해 오정의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빛고을나눔나무는 소원정사, 비전사, 연화사, 감로사, 대원사 등에서 정초와 초파일에 기부를 통해 마련한 공양미를 동구청에 전달했으며, 동구청은 관내 장애인 시설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 (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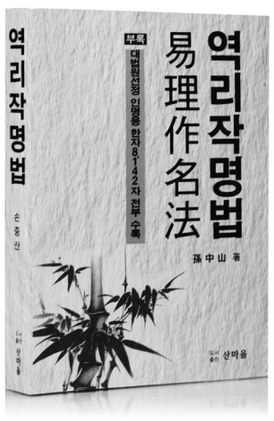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현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먼저 그 이름 바르게 지어 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